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 문학운동론적 관점에서

황 국 명**

차 례

- | | |
|----------------------------------|--------------------------|
| I. 들머리 | 1. 지리적 불평등과 대항적 문학운동의 전위 |
| II.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 | 2. 비경제적 운동조직과 매체의 후원 |
| 1. 5-60년대 문예지와 단명성 | 3. 대립적 공간의식과 기관지의 방향성 |
| 2. 70년대 문예지와 장르별 분화 | 4. 문화실천의 다원성과 소지역의 매체 경쟁 |
| 3. 80년대 문예지와 의식투쟁 | 5. 보편성, 탈이념성, 세계성의 착종 |
| 4. 90년대 이후의 문예지와 다양화 | 6. 매체의 지속성과 변증법적 문화전략 |
| III.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리적 상상력과 문
화전략 | IV. 맺음말 |

I. 들머리

인간은 태생지의 구체적 삶과 누적된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개개의 장소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결정하고, 특정한 문화형식은 특정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¹⁾ 지역문학이란 바로 지역의 이야기이고 지역문예지는 그 이야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087)

**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1) F.Moretti, *Atlas of European Novel*, Verso, 1998, pp.67-73 참조.

기를 담고 나누는 문화형식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지역문예지는 지역문학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역문학의 연구는 지역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²⁾ 최근 타자, 주변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대한 반성이다. 즉 근대화는 지역간의 불평등한 발전을 생산했고, 주변부에 정치적 차별과 억압을 집중하였으며, 지역의 다채로운 경험과 실천을 몰수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 다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를 동일한 시공간에 집결시키는 다국적 자본주의는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돌파하고 장소에 의존한 정체성을 해체하는데, 이런 동질화의 경향에 맞서 지역적 저항, 국지적인 자율투쟁이 출현한다는 것이다.³⁾ 이 두 가지 동기로 볼 때, 지역에 대한 관심은 한국 근대화가 초래한 지역 차별 혹은 지역의 불평등과 지역적 특성을 몰수하는 다국적 자본의 동질화(무차별성)라는 양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 문인들이 정치·경제뿐 아니라 문화의 중앙 집중현상을 비판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⁴⁾ 민족 내부의 문화 생산 및 향유에 있어 지역간의

2) 부산지역에서 지역학으로서의 부산학에 대한 관심은 특히 90년대 이후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산학 연구 문헌은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부산시·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에 정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설은 김대만, 『부산 문화연구 성과를 통해 본 ‘부산학’ 활성화 방안』, 『오늘의문예비평』 2003년 겨울호를 참조할 수 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 편, 『부산 사회문화의 이해』, 부산발전연구원, 1997과 신라대부산학연구센터 편, 『부산학총서』(1)(2), 신라대출판부, 2003,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조갑상, 『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 경성대출판부, 2000는 문학지리학의 맥락에서 지역문학을 연구할 가능성을 보였다. 문학지리학에 대해 J.Hillis Miller(최지원 역), 『문학지리학』, 『지역문학연구』, 1999년 봄호 참조.

3) D.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asil Blackwell, 1990, pp.302-303 참조.

4) 탈중심의 지역문학론에 대한 주요 성과로 구모룡, 『지역문학운동의 과제와 방향』, 『젊은 세대의 문학』, 시로, 1986, 2-29쪽, 『지역문학: 주변부적 가능성』, 『제유의 시학』, 좋은날, 2000, 240-244쪽 참조. 남송우, 『지역시대의 문화논리』, 전망, 1995와 『생명과 정신의 시학』 1부 『지역·문화·문학』, 전망, 1996 참조. 황국명, 『지역을 통한 사유와 지역문학의 전망』, 『계간시』, 2001년 겨울호, 60-76쪽 참조.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참조.

불균형과 격차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지역문화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매체 지배 혹은 매체 장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⁵⁾ 이처럼 한국의 불균등한 문화지형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문예지를 통한 문화적 실천은 행위 주체와 장소의 관계, 주체에 대한 지역공간의 영향, 주체의 장소와 타자의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등을 예민하게 인식한다. 이런 인식을 지형학적 의식 혹은 지리적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⁶⁾ 이렇게 볼 때, 지역이라는 특정한 장소는 관계의 자리이며 타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타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까닭에, 지리적 상상력은 비판적 지역주의의 원천이 될 수 있다.⁷⁾

-
- 5) 예를 들어, 2000년도 지역별 출판사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16,059개 가운데 서울이 12,279개(70%)를 점유하고, 부산은 550개(3%)를 갖는다(출처: 문화관광부 2001, 2/4분기,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를 취합). 이런 사정은 문예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2000년도 문학잡지 중 178종에서 서울이 153종(77%), 지방은 45종(23%)을 발행한다(출처: 문화관광부/「2000 문예연감」). 문학잡지의 발행은 더욱 서울에 편중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중심 서울에서 거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나머지 지방은 그 소비지임을 암시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의 문화산업은 소수의 생산 중심(서울)과 다수의 분산된 소비지점(지방)을 결합한다고 하겠다. A.Milner,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 NewYork Univ.Press, 1996, p.42 참조.
- 6) 지리적 상상력(geographical imagination)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공간과 장소의 역할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나 조직간의 관계에서 공간이 미치는 영향이나 자신과 이웃 혹은 자신과 자신의 구역(turf)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인식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사건과 자신의 관계를 판단하며, 타인이 창조한 공간의 의미를 감식하거나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작용하는 것이 지리적 상상력이다. D.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The Johns Hopkins Univ.Press, 1975, pp.23-24 참조.
- 7) 장소의 특질에 근거하여 상품화와 금전만능주의에 저항하고, 환경과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재활성화하는 데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혹은 대항적 특수주의(militant particularism)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진다. D.Harvey,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1996, p.306 참조.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역의 순수성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운동이라 이해되기도 한다. 김용규, 「반주변부지역 문화의 전망」, 제4회 요산문화계 문학심포지엄 자료집 『우리 땅에서 민족과 세계를 본다』, 도서출판 전망, 2001, 78-79쪽 참조. 장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실증주의 지리학을 벗어나 사물(사회)과 공간의 관계를 재인식하려는, 지리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한다. 공간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최병두, 「지리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문예지를 특정한 장소에 근거한 지형학적 상상력의 산물로 보고, 그 현황과 특성을 문학운동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지형학적 의식과 문학운동은 지역 문학의 존재방식이며 동시에 지역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부산지역 문예지의 현황과 특성을 해명함에 있어 본 연구는 5-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나누되, 특히 주요 문예지의 창간사나 발간사를 중심으로 지역문예지의 문학적 이념적 동기를 구체화하고자 한다.⁸⁾ 그 내용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과정을 통해 문인들의 참여 형태, 장르별 분포, 종별과 간별의 변화 등을 살피고 둘째, 문학운동의 지향점, 운동조직의 성격과 후원제도의 관련, 대립적 공간의식과 기관지의 방향성, 행정단위별 매체 경쟁과 탈이념성을 주목하며, 셋째, 대표적인 문예지를 통해 부산지역 평단의 형성과 문화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간정치경제학」, 『오늘의문예비평』~1998년 가을호, 41-57쪽 참조.

- 8) 동인지, 기관지, 무크지, 전문지 등을 모두 본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현재에까지 부산지역 문예지는 적지 않기 때문에, 개개 문예지의 내용을 물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뒤따라야 할 과제이다. 이하의 문예지 리스트는 선행 연구와 필자가 만든 설문지를 통해 보완된 것이다. 선행 연구로 박정상, 『부산경남의 신문잡지 출판고-1945.8.15에서 1950.6.25까지』, 『전망』~1집, 1984, 『동란기 부산경남 지방의 신문잡지 출판고』, 『전망』~2집, 1985와 김중하, 『해방공간의 부산문학』, 『부산시사』~4권, 부산시, 1991, 남송우, 『부산 출판문화의 현황과 과제』, 『지역시대의 문화논리』, 211-229쪽, 부산문인협회 편, 『부산문학사』, 1997에서 크게 도움을 얻었다. 응답지와 함께 자료를 챙겨주신 분들을 밝혀 감사의 뜻을 보이고자 한다. 공재동, 김경수, 김규태, 김상남, 나영자, 류명선, 박삼도, 박양근, 박윤규, 박홍길, 배상호, 배익천, 손수자, 유병근, 윤진상, 윤홍조, 이국재, 이해웅, 임종성, 전일희, 정진채, 조갑상, 주장식, 차한수, 최만조, 최창도, 최희웅, 황다연, 황정환(가나다순). 전자잡지로 월요시(poem4m.hihome.com), 노벨레21(www.novelle21.com)이 있지만, 오프라인의 잡지를 온라인에 그대로 올려둔 경우도 있어 참고만 한다.

II.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

1. 5-60년대 문예지와 단명성

국권박탈기나 해방 직후의 부산지역 문예지는 부산문학의 독자적인 전개를 위한 중요한 잠재력이었고,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50년대 이후로 보인다.⁹⁾ 여기에 부산은 50년대 임시수도이며 피난 문단의 중심지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언론 출판사들은 신문과 잡지를 부산에서 창간하거나 속간 또는 복간하였다. 이렇게 유입된 수도권의 문화는 새로운 부산 문화를 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¹⁰⁾ 그러나 5-60년대의 부산의 문학 현실은 소수의 헌신적인 문인들에 의해 가까스로 유지된 듯하다. 이 시기의 문예지를 조사한 결과, 50년대 15종, 60년대 13종으로 모두 28종이 발간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무가	⑦비고
瑞枝	1950	종간	부정기	동인지	미상	남녀고교생
신작품	1952	8호	부정기	시동인지	미상	
문학예술	1952	종간	주간지	종합지	미상	2002년 여름호 재창간
詩潮	1952	종간	부정기	동인지	미상	부산대 대학생문학회
현대문학	1954	종간	부정기	동인지	미상	현대문학연구회

9) 부산 최초의 문예동인지는 유치환이 주도한 『生理』(1937년)로 알려져 있다. 윤정규, 『새 지평을 모색하던 50년대 부산문단』, 『문학과세계』~창간호, 1990, 212쪽. 윤정규는 5호로 종간되었다고 하나 2호 종간이라 추정되기도 한다. 박철석,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 『지역문학연구』2호, 1998, 54쪽. 박정상의 자료에 의하면, 해방 후 부산지역에는 『애국문예신문』(1946, 주간), 『학인』(1949, 부정기) 등이 있었다. 국권박탈기와 해방기에 부산과 경남의 문단 분화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해당 시기에 매체 투쟁을 펼쳤던 경남지역 문예지를 포함하여 부산경남 문예지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학계의 공동연구가 요망된다. 경남지역 문예지의 매체 투쟁에 대한 주요 연구로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참조.

10) 박정상, 『동란기 부산경남 지방의 신문잡지 출판고』, 283쪽.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무가	⑦비고
超劇	1954	1집	부정기	동인지	미상	2인 동인지
Geiger	1956	종간	부정기	동인지	미상	Gammas동인
시연구	1956	1집	부정기	시전문지	미상	
한글문예	1957	종간	계간지	종합지	미상	
문필	1957	종간	부정기	기관지	미상	부산문필가협회
新潮文學	1958	5집	부정기	종합지	미상	
新群像	1958	1집	부정기	종합지	유가	3인 잡지
오후	1962	3집	부정기	동인지	유가	
문협	1962	종간	연간	기관지	미상	한국문협경남지부
詩旗	1963	1집	부정기	동인지	미상	
간선	1963	종간	부정기	종합동인지	미상	부산대 재학생
隨筆	1963	발행중	반년간	수필동인지	유가	『Essay』로 창간되었으나 2호부터 개제
新語	1963	1호	부정기	시동인지	미상	
시문예	1964	종간	계간지	시동인지	미상	
부산문예	1964	종간	연간	기관지	유가	예총부산지부
윤좌	1965	발행중	연간	수필동인지	무가	
문학시대	1966	종간	월간	종합지	유가	
부산문학	1967	발행중	연간	기관지	유가	문협부산지부, 『문협』속간

이들 외에 『문예신문』 『殞石』 『詩門』 『일요문학』 『21세기』 『문학계』 『탑』 『예총』 『잉여촌』 『白地』 등이 있다. 5-60년대 문예지 활동에서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¹¹⁾

11) 제시된 문예지 가운데 입수할 수 없었던 자료가 많아 연구의 실질을 다했다고

첫째, 종별로 동인지가 압도적이고, 간별로는 부정기가 주류를 이루며, 대체로 단명하였다. 이런 특징은 전후 한국사회의 궁핍뿐 아니라 피난문인들에 의해 형성된 피난문단의 한시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문학청년 혹은 학생문단의 형성과 활발한 활동이 있다. 남녀고교생 동인지 『瑞枝』, 부산대 재학생들의 『詩潮』 『간선』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일종의 습작문단시대라 하겠고, 이후 부산지역 문학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정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뚜렷하다. 『詩潮』의 창간에 간여한 고석규는 『신작품』 『시연구』에 적극 참여했고, 문인협회 기관지인 『부산문학』을 주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김재섭과 함께 2인 동인지 형식으로 『超劇』을 삼협문화사에서 출판하면서 50년대 평단의 총아로 부각되었다.¹²⁾

넷째, 특기할 만한 것은 수필동인지로 『隨筆』(창간호는 연간지였으나 2호부터 반년간으로 발행)과 『輪座』는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이 역시 이주홍, 박홍길 등의 부단한 자기희생과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 60년대에 들면서 문인단체의 기관지가 증대하였다. 문협경남지부의 『문협』, 예총부산지부에서 『예총』 『부산문예』, 부산문필가협회의 『문필』이 그러하다. 특히 우익의 사상적 공격에 대응한 부산문필가협회의 출현은 이후 수십 년 간 한국사회를 장악한 냉전적 사고와 이로 인한 갈등의 단서를 보여준다.¹³⁾

보기 어렵다. 앞으로 깊고 보태어야 할 과제로 남긴다.

12) 요철한 고석규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80년대의 동인·무크운동에 수반된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 문헌으로 남송우, 『고석규, 그 잊혀진 미완의 비평적 행로』, 『부산문학』 17집, 1985, 박홍배, 『고석규 연구』, 『재부작고시인』(구연식 외), 아성출판사, 1988, 구모룡, 『고석규, 혹은 역설의 비평가』, 『현대시학』, 1991 3월호,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시와시학』, 1991년 겨울호, 1992년 봄호, 임태우, 『고석규 문학 비평연구』, 『현대문학연구』 146집, 서울대학교학원, 1993, 송창우, 『전쟁기 부산이 낳은 동인지 『신작품』(新作品)』, 『지역문학연구』 6호, 2000 참조.

13) 윤정규, 같은 글, 214-215쪽 참조.

2. 70년대 문예지와 장르별 분화

70년대는 혹독한 유신체제와 도시로 유리된 이농세대의 임금노동자화, 부마항쟁 등으로 특징된다. 문학영역에서는 민족민중적 시각에서 민족문학논쟁이 뜨겁게 점화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독재권력과 매관자본의 결합으로 민족 구성원의 주체적 생존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부산문단에는 66년 『모래톱이야기』로 활동을 재개한 이후 요산 김정환이 중심에 있었지만, 문예지 활동은 시 장르에 치중되었다. 70년대에 새로 창간된 지역 문예지는 22종이며, 시동인지가 주종을 이루었다.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 무가	⑧비고
시인들	1972	7집	격월간	시전문지	유가	
회귀선	1973	발행중	부정기	동인지	무가	부산의대생 중심. 93년 복간
부산아동문학	1973	1집	연간	회지	유가	부산아동문학회
석초	1974	3집	연간	동인지	유가	석초시동인회
남부의시	1974	중간	연간	사화집	유가	부산시인협회
시와의식	1974	1976	계간	종합지	유가	동인지로 출발, 계간시잡지
별씨	1974	24집	연간	시조동인지	무가	부산시조문학회
시로	1975	중간	연간	동인지	무가	
맥파	1976	발행중	연간	동인지	유가	부산교대 아동문학가모임
남부문학	1977	78년10호	계간	종합동인지	유가	남부문학회
오늘의문학	1977	중간	계간	학·예종합지	유가	낙동문학회
어린이문예	1977	발행중	격월간	아동문학지	무가	부산문화방송
탈	1979	6집	부정기	시동인지	유가	탈동인회

이외에도 『목마』 『산호초』 『교단문예』 『동아시집』 『한국여성시』 『하얀벚고동』 『소년문학』 『늘보리』 『귀성』 『갈숲』 등이 있다. 70년대 부산지역 문예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이 시기의 문예지는 시동인지가 대부분이지만, 장르별로 전문화될 조짐을 보인다. 시전문지로 『시인들』, 시조동인지로 『법씨』를 주목할 수 있다.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이 무거운 소설은 발표 매체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남부문학』 『오늘의문학』은 부산소설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둘째, 새로운 동인지의 창간은 발표 지면의 확보라는 지역 문인의 절박한 성과와 관련된다. 당시 한국 문단은 “경향과 유파, 인맥과 학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까닭에,¹⁴⁾ 소외된 지방 문인은 동인지를 통해 지면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70년대 부산문예지는 유가지(有價誌)로 전환 과정에 있고, 간별로는 부정기 혹은 연간지가 대중을 이루었지만, 월간(『어린이문예』), 격월간(『시인들』), 계간(『시와의식』 『남부문학』 『오늘의문학』)도 자리를 잡게 된다.¹⁵⁾

넷째, 이 시기에 아동문학지가 증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아동문학』 『교단문예』 『맥파』 『하얀벚고동』 『어린이문예』 『소년문학』 『늘보리』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된다. 특히 월간 『어린이문예』는 95년 193호로 휴간에 들어갔으나 2000년 194호로 복간하였다. 190호부터 격월간에 무가지로 전환하였지만, 현재까지 발행중인 것은 아동문학의 역사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한 것은 부산MBC가 발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3. 80년대 문예지와 의식투쟁

흔히 전반부를 억압의 시기, 후반부를 해금의 시기라고 일컫듯이, 80년대 한국사회는 80년 벽두의 참담한 광주항쟁, 87년의 민중적 승리, 뒤이은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외수탈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

14) 강남주, 『목마-서정시의 확립』, 『부산문학』 15호, 1984, 6쪽.

15) 『오늘의문학』 창간호 편집 후기는 식상한 상업지의 병폐를 탈피하여 “새로운 상업지적 성격을 가미하는 기획 특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성격과 전문성을 강조한 뜻으로 이해된다.

인가의 문제가 점차 한국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대한 우려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단모순을 민족적 과제로 반영하기도 하고, 변혁의 힘을 상실한 소시민계급의 비역사성과 생산대중의 광범위한 조직화에 근거하여 민중문학이 대두한다. 그런가 하면, 탈근대를 표방하는 사회이론, 문학론이 소개되면서 이데올로기적 관리체제에 대한 비판이 글쓰기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부산문예지에도 유·무형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이 강제 폐간되자 정치적 억압에 대한 문화적 대응형태로 출현한 무크지 운동은 80년대 부산문단의 주요 추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80년대 부산문예지는 7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 모두 37종이 새로 창간되었다. 대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 무가	⑧비고
열린시	1980	휴간	연간	시동인지	유가	열린시동인
배토	1981	발행중	연간	종합동인지	무가	『부산여류문학』으로 개제. 부산여류문학회
목요문화	1981	발행중	월간	종합문화지	유가	목요학술회
시와인간	1983	6집	연간	시동인지	유가	시와인간동인회
소설마당	1983	발행중	연간	회원창작집 (기관지성격)	유가	부산소설가협회
지평	1983	1991	부정기	종합동인지	유가	
전망	1984	1994	부정기	종합동인지	유가	
토박이	1984	1986(2호)	부정기	문화종합지	유가	2호로 판금 조치
예술부산	1984	발행중	계간	기관지	무가	예총부산지부
목필	1985	2000	부정기/ 연간	동인작품집	무가	목필동인

16) 80년대 동인·무크지가 추구한 문학운동의 전략에 대해 황국명, 『80년대 소집단 운동의 전략과 그 의식지평』,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 도서출판 지평, 1988, 153-193쪽 참조.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 무가	⑧비고
부산아동문학	1985	1987(4호)	부정기	아동문학	무가	부산아동문학협회
부산여류시조	1986	발행중	연간	동인지	유가	부산여류시조문학회
문학과실천	1987	종간	부정기	기관지	유가	5·7문학협의회
추리문학	1988	종간	계간	소설전문지	유가	
거래문학	1989	1990	계간	종합지	유가	
실상문학	1989	종간	부정기	기관지	유가	부산불교문인협회
문학과현실	1989	종간	부정기	기관지	유가	부소협, 부민협 합동 무크지
부산카톨릭문학	1989	발행중	연간	기관지	유가	부산카톨릭문인협회

이들 외에 『부산수필』 『을숙도』 『날개』 『시와자유』 『모시울』 『여울』 『가락』 『영점오구구』 『부산문화』 『여성통신』 『수평선』 『소리』 『겨울산하』 『부산시조』 『교목』 『여성문예』 등이 있다.

80년대 문예지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크지, 즉 부정기 간행물인 『지평』 『전망』 『토박이』 『문학과실천』 『문학과현실』이 출현하면서 문학과 삶의 연관을 강조하고 특히 비평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은 크게 강조될 만하다. 이 시기의 부정기 간행물은 단순한 발표 지면의 확보가 아니라 억압적인 현실에 맞선 싸움의 형태이기도 했는데, 이는 1984년에 창간된 문화종합 무크지 『토박이』 2호가 판금 조치(1986)된 데서도 확인된다.¹⁷⁾ 또 『시와자유』 동인들은 외면당한 민중의 삶을 주목하고 “불굴의 저항정신”과 “자유정신”을 내세운 바 있다.¹⁸⁾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동인·무크지는 억압에 맞선 의식투쟁의 유효한 매체였다고 하겠다.

17) 김정환, 『5·7문학 작품집 발간에 즈음하여』, 『문학과실천』 창간호 발간사, 1987, 12쪽.

18) 임수생, 『시와 자유-민중의 울림을 시로 표출』, 『부산문학』 15호, 1984, 10쪽.

둘째, 문인단체의 기관지가 새로 생겨났는데, 이 경우 창작 갈래, 이념, 직업, 종교 등의 차이에 의해 분화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소설마당』(부산소설가협회) 『문학과실천』(5·7문학인협회) 『부산시조』(부산시조시인협회) 『문학과현실』(부산민족문학협의회와 부산소설가협회) 『실상문학』(부산불교문인협회) 『부산카톨릭문학』(부산카톨릭문인협회) 『부산수필』(부산수필가협회) 등이 그 러하다.

셋째, 종합지와 함께 소설전문 계간지 『추리문학』이 소설가에 지면을 제공했고, 계간 종합지로 1989년에 창간된 『겨레문학』은 무크지시대의 종말을 예견한 것이라 하겠다.

넷째, 여성문인들의 독자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었다. 『배토』(『부산여류문학』) 『부산여류시조』 『모시울』 등의 매체는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여성문인의 발표 무대를 제공하였다.¹⁹⁾

4. 90년대 이후의 문예지와 다양화

90년대에 들면서 한국문학 전반에 걸쳐 위기론이 팽배하였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소비사회의 징후를 내보였고, 정보화시대, 멀티미디어시대에 따른 문화지형의 변동 혹은 문화권력의 이동과 재편성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문학위기론의 이면에 놓인 것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른 다매체 환경이었다.²⁰⁾ 다른 한편, 문학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문학의 정전, 문학의 사회적 기능뿐 아니라 글쓰기의 인문학의 가치가 사회 전체의 가치와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를 근본적으로 문

19) 70년대까지 여성문인들 사이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80년대 들어 이런 교류가 조금씩 표면화되면서 여성문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지는데, 남성중심의 동인지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로 인식된 듯하다. 정영자, 『배토-여류문학, 그 다양한 장르』, 『부산문학』 T5호, 1984, 8쪽.

20) 특히 90년대에 들면서 소설의 위기가 강조되었고, 그 객관적 배후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거대이론의 붕괴 및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팽창, 후기구조주의 철학, 후기자본주의 사회이론, 문학적 포스트모더니즘 등 각종 포스트증후군.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출판문화와 상업주의의 팽배 등이 지적된다. 황국명, 『다매체 환경과 소설의 운명』, 『현대소설연구』 1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9-11쪽 참조.

제삼은 것이었다. 이들 논의는 근대성 논의로 이어졌고, 거기서 보편적 근대의 재인식과 한국근대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근대의 내용 규정이 다루어졌다. 특히 탈근대로의 이념적 지평으로 상정되었던 사유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근대 성찰은 복잡하고 착잡한 양상을 띄게 되는데, 지역이나 주변부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언술의 출현도 이런 맥락에 놓인다.

그런데 문학의 위기 혹은 종언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 90년대에 65종, 2000년 이후 10종 등 많은 문예지가 새로 창간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무가	⑦비고
문학의세계	1990	종간	계간	기관지	유가	부산문인협회, 『문학도시』로 개제
신서정시그룹	1990	발행중	계간	시동인지	유가	
오늘의문예비평	1991	발행중	계간	비평전문지	유가	
지평의문학	1993	4호	반년간	종합지	유가	『문학지평』으로 개제
문예시대	1993	발행중	계간	종합지	유가	
시와숲	1994	발행중	연간	동인지	유가	
시와사상	1994	발행중	계간	시전문지	유가	
시작업이후	1995	발행중	반년간	시동인지	유가	
열린시	1995	종간	월간	시전문지	유가	월간 열린시사
문학도시	1995	발행중	계간	기관지	유가	부산문인협회
문학지평	1996	종간	계간	종합지	유가	
수영문예	1996	발행중	연간	기관지	무가	수영구문인회
작가사회	1997	발행중	반년간	기관지	유가	부산작가회의
주변인의시	1998	발행중	계간	시전문지	유가	『계간시』로 개제
부산여성문학	1998	발행중	연간	기관지	무가	부산여성문학인회

①잡지명	②창간	③종간	④간별	⑤종별	⑥유/ 무가	⑦비고
시의나라	1998	발행중	계간	시전문지	유가	도서출판 푸른별
청동시대	1999	휴간	부정기	동인지	유가	
신생	1999	발행중	계간	시전문지	유가	
푸른문예	2000	7호	계간	종합지	유가	푸른문예사
시와의식	2001	발행중	연간	시동인지	유가	
소설마을	2002	발행중	계간	소설전문지	유가	
부산펜문학	2002	발행중	부정기	기관지	유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산위원회
해양과문학	2003	발행중	부정기	해양문학전 문지	유가	한국해양문학가협회

이들 외에 『동화문학』 『형상과인식』 『문예수첩』 『부일신춘문예작품집』 『동백수필』 『수필시대』 『부산수필문학』 『생활문학』 『금샘』 『문맥』 『시맥』 『석필』 『갈매시』 『서정시문학』 『크리스찬문학』 『청솔래』 『예감』 『샘과가람』 『신형상』 『문향』 『해조음』 『평행시』 『월요시』 『행간』 『시전달』 『젊은시인』 『여성』 『시와인식』 『우리들문학』 『나무와숲』 『남녘문단』 『부경에스프리』 『시21』 『시인의 마을』 『예술공보』 『심맥』 『징검다리』 『게릴라』 『지층과단층』 『숲길』 『이시나모』 『동아문학』 『동래문학』 『해운대문예』 『해운대문학』 『금정문학』 『북구문학』 『기장문학』 『양산문학』 등이 있다.

이 시기 부산문예지는 첫째, 거의 모든 장르의 전문지 및 동인지가 생산되는 다양화로 특징된다. 생태문학이나 해양문학처럼, 특정한 문학이념이나 창작영역을 강조한 『신생』 『해양과문학』의 창간도 다양화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둘째, 종합지 및 전문계간지의 증대로 간별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소설의 발표 지면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들 계간지를 종별로 나누어 보면, 종합지로는 『문학의세계』 『문학도시』 『지평의문학』 『문학지평』 『문예시대』 『게릴라』가 있고, 시동인지로 『신서정시그룹』, 시전문지로 『시와사상』 『주변인의詩』 『시의나

라』가 창간되었다. 수필전문지로 『수필시대』가 있고, 아동문학전문지로 『동화문학』, 비평전문지로 『오늘의문예비평』, 소설전문지로 『소설마을』이 있다.

셋째, 이 시기 부산문예지는 다양한 공동성 위에 분화되었다. 등단지 『월간문학』을 공분모로 한 『문학』과 출신 학교를 공분모로 한 『동아문학』이 그러하며, 행정 구역을 단위로 독자적인 문예지를 꾸려나간 것도 의미심장하다. 『강서문학』, 『기장문학』, 『양산문학』, 『동래문학』, 『해운대문예』, 『금정문학』, 『북구문학』 등이 그러한데, 이는 글쓰기의 일상화, 민주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거의 모든 문예지의 유가지화와 함께 전문출판사가 독자적으로 문예지를 발간한 것도 강조될 만하다. 『열린시』(월간 열린시사) 『시의나라』(도서출판 푸른별)가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상업지는 문예지의 상품적 지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동인들의 자비나 일부 후원에 의해 유지되었기 때문에, 문예지의 유료화를 상업지로의 본격적 이행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문예지를 분석한 결과,

① 5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의 문예지는 단명성에서 장르별 분화로 이어지고, 거기서 의식투쟁과 다양화의 방향으로 전개하였다고 하겠다.

② 부산문예지는 편집위원 체제보다 참여 주체가 연대한 동인체제가 주류를 이루며, 다양한 공동성, 인간적 유대나 친소관계, 이념에 의한 결합이라는 특성을 드러낸다.

③ 종별로 장르별 전문지의 성장이 뚜렷하다. 일부 전문지와 종합지, 기관지의 지속적 발간은 발표 지면의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④ 간별로 볼 때 전문지일수록 계간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이같은 정착은 문예지 발행의 안정성으로 확보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월간지가 없음은 부산지역 문예지 출판의 상대적 열악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⑤ 장르별로 보면 시(56종), 종합(55종), 수필(10종), 아동문학(9종), 소설(5종), 비평(1종), 기타(26종)로 시문학지가 우세하다.

⑥ 유가지(有價誌)가 압도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잡지도 출현하였으나, 대체로 동인들의 자비 부담이나 특정 후원자의 후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⑦ 문예지가 다양화, 복수화되면서 참여인원이 증대하고 특히 여성문인들의

활동기반이 갈수록 확장되었다.

Ⅲ.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리적 상상력과 문화전략

1. 지리적 불평등과 대항적 문학운동의 전위

지리적 상상력이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함축한다면, 각 문예지는 지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적대자나 경쟁자의 소음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6년 창간된 『문학시대』의 창간사는 지역문단이 “서울문화권에 예속”되어 푸대접을 받는다 하고, 중앙문화만 비대해지는 현상을 “문화의 기형아현상”라 비판한 바 있다.²¹⁾ 이러한 사정은 70년대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문단은 “중앙문단의 식민지적 예속” 상태에 있으므로 독자적인 활동 기반을 위해 “문예지와 기관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²²⁾ 이와 같이 부산지역 문예지는 다른 지역, 특히 서울지역의 매체에 대해 논쟁적이었고, 그 논쟁은 집단적 운동성을 강력하게 표방하였다. 부산지역 문예지의 주류가 동인체제임은 이런 운동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77년 봄호로 창간된 『남부문학』은 ‘남부문학회’가 동인지 형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강성환, 강인수, 김석, 김용태, 노석기, 박광익, 성병오, 이규정, 이옥형, 정순영, 차한수, 최상운 등을 회원으로 하였다. 이미 등단하거나 창작 경륜을 지닌 이들은 연령, 이념, 실질면에서 “다 한 가락씩 하는 중견들” “쟁쟁한 멤버들”로, “이 땅의 文學史에 또 하나의 기록을 더하게” 되었다고 지역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내세워 이채롭다. 특히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문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은 “문학이 중앙 집권 現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지역문학운동의 맹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1) 김영, 『새벽길 떠난 향과 선생님』,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이주홍아동문학상운영위원회), 도서출판 세한, 2001, 51-52쪽 재인용.

22) 박문하, 『부산문학과 문단의 근황』, 『재부작가론, 작품집』, 문협부산지부, 1974, 146쪽.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본지는 향토를 사랑하는 지방 문인들의 발표의 광장으로서, 지방의 자치적 문인 배출의 기관으로서, 향토 문화 육성의 광장으로서, 안으로는 힘차고 밖으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 것이다.(『남부문단의 종합문예지 지향』, 『남부문학』 창간사, 1977, 9쪽)

지역 문인의 발표 지면 확보, 지역 자체의 문인 배출, 향토 문화의 육성은 지역문예지로서 추구할 방향성이라 하겠는데, 『남부문학』은 이런 지향의 근거로 문학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학술 능력, 지방 산업의 활발한 발달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현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1977년 가을호로 창간된 『오늘의문학』은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 『오늘의문학』은 학술과 창작을 겸한 학·예 종합지의 성격을 띤 것으로, 편집인에 김병규, 편집주간에 윤정규를 두고, 박지홍, 최해균, 서인숙, 강남주, 김종하, 김용태, 임신행, 이성순을 편집위원으로 삼았다. 이들은 ‘낙동문화회’를 구성하고, 『오늘의문학』이 지방색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중앙 문학의 안이한 모방·이입”을 피하고, 세계문학으로까지 발돋움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김병규, 『세계문학에의 발돋움』, 『오늘의문학』 창간사, 1977, 4쪽).

『오늘의문학』창간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좌담이다. <지방·지방문화·지방문학>을 표제로 내세운 좌담은 당시의 문화현상을 진단한 것으로 문학단체의 폐쇄성, 지역 소외, 추천 제도의 폐해와 평단의 무능 등을 성토했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문화의 “중앙집권”, 서울문인들의 독선적 고자세, 이에 대한 지방문인들의 “부러움에 찬 사고”를 문제로 꼽았다. 중앙을 향한 왜곡된 부러움에 대한 내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앙집권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지리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예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지역 ‘문학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늘의문학』은 국가 권력이나 경제권력, 지배적인 중앙문화에 맞서는 대항문예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²³⁾

23) 일정한 이념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하거나 지배적 주류적 정치·경제권력에 맞서는 잡지를 대항잡지라 할 수 있다. 이용성,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국학논총』 37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3, 193-194쪽 참조. 1978년 5월에 발행된 『오늘의문학』 2호의 편집후기에 의하면, 문공부는 동

우리 洛東문학회가 지향하려는 문학운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울이나 다름없는 도시문명이 휩쓸고 있는 부산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는 이 고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남지방에는 각 지방마다의 강렬한 지방색이 있어 그 속에 내재(內在)해 있는 특성을 찾아 표현하는 것도 우리 洛東문학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²⁴⁾

대항문예지로서 『오늘의문학』이 제시한 문학운동의 기반은 “지역의 특성”이다. 즉 지역이 지닌 자연적 인문적 지리의 “특수성”을 살려 “자기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즉 장소애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입을 통해 중앙의 입을 열게 하는 것” 혹은 “개체를 통해 전체를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은 지역(특수성)을 통한 민족(보편성)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남부문학』~『오늘의문학』은 두 문예지는 중앙문단을 향한 의식의 편향을 반성하고 지역의 특수성 혹은 지역문인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한다. 지역문인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은 지역은 문화의 결여태가 아니라는 자부심이며, 서울문단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은 지역(주변)을 반문명이나 무지로 간주하는 단일문화적 관점에 대한 부정이라 하겠다. 넓고 편협한 지역주의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실천과 경험을 강조한 것은 지역의 가치를 널리 찾고 지역의 삶으로 되돌리려는 노력²⁵⁾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들 두 문예지는 지역적 삶의 특유한 방식, 지역의 변별적인 자질을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학 운동주체로서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은 정치문화적 투쟁의 전위가 되고자 열망했다고 할 수 있다.

지를 정기간행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정하고 부정기 단행본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를 두고 동인들은 문예지 발행을 ‘산고’에 비유하고 있다. 『오늘의문학』 2호, 1978, 316쪽 참고.

24) 좌담 『地方·地方文化·地方文學』, 『오늘의문학』 창간호, 1977, 10쪽.

25)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2호, 1998, 115쪽.

2. 비경제적 운동조직과 매체의 후원

문학운동의 매체로서 특히 망실된 지역작가의 작품을 복원하거나 소재를 확
인함으로써 지역의 문학적 자산을 확대한 일은 지역문예지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을 정치적 투쟁의 토대나 문화적 자산으로 삼되
지방색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지역 문예지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였
다. 지역문학의 프리미엄을 가져야 한다는 편협한 지역주의를 경계하면서, 지
역문학운동은 지역 현장의 “특수성이 보편성과 만나는 변증법적 관계”를 성취
하고자 노력한 것이다(『지평』6집 발간사, 1987, 10-11쪽).

그런데 운동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매체 운영의 지속성이다. 지역의
문예종합지를 표방한 『지평의문학』창간사가 이를 강조한 바 있다.

부산은 팔십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불을 당긴 진원지이고 구체적인 매개물
로 『지평』, 『전망』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중략...)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치열했던 팔십년대 지역문학운동의 수월하지 않았던 성과들이 묶
여지지 못하였던 것은 운동의 지속성과 설득력을 담보해주는 매체의 확보를
서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창간호를 내면서』, 『지평의문학』창간사,
1993, 14쪽)

『지평의문학』을 이어 『문학지평』으로 개제하면서 동인들이 주목한 것도 문
학담당층의 참여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것이고, 『소설마술』(2002) 창간사 또한
지방 작가들은 “아예 발표 지면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삶의 모든 부면에서 지리적 불평등 속에 놓인 지역문학 운동주체
에게 지속성을 지닌 매체 확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부산지역 문인들이 겪은 매체 확보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
로 보인다. 70년 『오늘의문학』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 거부나 80년대 『토박

26) 부산지역의 문학 자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진작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
후라고 할 수 있다. 『겨레문학』은 동학관련 문학자료를 발굴했고, 『지평의문학』
은 부산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즉 해양성에 근거하여 부산문학의 특성을 해명
하고자 했다. 기획평론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바다》가 그것이다. 『오늘의문예
비평』동인들이 엮은 『고석규 유고전집』전 5권, 책읽는사람, 1993도 지역문학운
동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이』2호의 판금조치에서 보듯, ‘푸대접’ 받는 ‘토박이’의 삶을 직시하면서 문예지를 지역사회 문화운동을 위한 매체로 삼는 데 정치적 억압이 뒤따랐다. 또 『지평의문학』 창간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역 작가의 작품과 지역 출판물에 대한 독자의 외면도 매체 확보에 큰 장애가 되었다.²⁷⁾ 여기에 보태어 지역 문예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문학과현실』1집 격려사에서 김정환은 “출판기금”을 마련하지 못해 문예지 출판이 오래 미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거니와(김정환, 『격려의 말』, 『문학과현실』1집, 1989, 10쪽), 문예지 출판에 있어 경제적 난관은 지역출판사의 영세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출판의 영세성은 문예지의 물적 토대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²⁸⁾

정치적 억압, 독자의 서늘한 관심, 재정적 빈곤, 출판의 영세성은 부산지역 문예지의 단명성과 무관하지 않고, 단명성은 매체의 지속을 위해 운동주체에게 부담한 자기희생을 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부산지역에서 문예지 참여 주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직업적 조직이 아니라 문학운동이라는 비경제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 하겠다.²⁹⁾

그러나 비경제적 운동조직의 자기희생이라는 윤리적 태도로 매체 장악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매체 지배는 문학생산의 현실적인 문제인 까닭이다. 거의 대부분 유가지로 전환된 9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수 문예지는 특정 독지가의 후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27) “부산지역 저자들의 책을 구입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지역시민은 ① 없다 464명(60.9%) ② 있다 268(35.2%) ③ 무응답 30(3.9%)으로 답했고, “부산지역 저자들의 책에 대한 평가”로 ① 무응답 315(41.4%) ② 대체로 괜찮다 299(39.2%) ③ 타지역 저자의 책에 못지 않다 113(14.8%) ④ 내용에 아주 실망했다 35(4.6%)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의 출판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수치라고 하기 어렵다. 남송우, 『부산지역 독서실태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대의 문화논리』, 230-243쪽 참조.

28) 문예지 하나 발간할 수 없는 출판의 영세성은 부산지역의 문화적 낙후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김천혜, 『부산문학의 오늘과 내일』, 『오늘의 문학회』, 지평, 1985, 43-44쪽 참조.

29) 직업적 조직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집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며, 예술운동은 비경제적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지식인은 문화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A.Milner, 같은 책, p.109 참조.

유가지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산지역 문예지는 시장제도가 아니라 후원제도(patronage) 아래에 있는 셈이다.³⁰⁾

이런 후원은 뜻하지 않게 문예지의 성격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실상문학』창간호에서 후원자는 문예지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불교의 진리를 창작문학에 접목시켜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실천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셋째 문화예술행사의 새로운 영역확대의 모색이다. 네째 창작문학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이다. 끝으로 불교포교를 위해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의 개발의 선도적 역할이다(원광, 『웅달샘이 되었으면……』, 『실상문학』창간호, 1989, 18쪽).

물론 부산불교문학인협회의 기관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불교 진리를 문학에 접목하거나 포교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것은 신앙의 의미뿐 아니라 그 경험까지 공유하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 문학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거나 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면, 이는 문학에 의한 종교 비판으로 시작될 것이다. 종교가 표방한 기존의 진리에 대한 문학적 비판이야말로 종교에 대한 문학의 영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또 “문화예술행사의 새로운 영역확대의 모색”은 문학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종교적 영역의 확대이다. 그러니까 후원자는 특정 종교의 전파나 수용과 미래를 위한 문학의 복무를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부산의 문예지는 물질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같은 사정에 처할 수 있고 따라서 편집권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다. 오늘날 문학생산의 특징은 그 자본주의적 성격에 있다. 문예지 출판은 문화의 생산이며 동시에 이익을 추구한 상품의 생산이다. 지역문예지가 문학‘운동’ 차원에 놓인다 하더라도, 운동의 재생산을 위해 경제적 목적과 문화적 목적을 통합하는 일은 과제로 남는

30) 후원제도 하에 있으므로 전근대적인 문화생산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정부로부터 직간접형식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공적 후원제도는 후기사장제도라고 말해진다. A.Milner, 같은 책, pp.104-107 참조.

31) 황국명, 『주아적 삶과 형식적 서투름』,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 지평, 1988, 259-260쪽 참조.

다고 하겠다.

3. 대립적 공간의식과 기관지의 방향성

부산지역 문예지는 매체 지배의 지속성뿐 아니라 지역 내부의 다른 매체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각 매체는 지역사회와의 연관 속에 자신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연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지역문예지는 경쟁적이거나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경쟁은 지역 내 문단할거주의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 매체간의 경쟁은 민족문학이라는 명시적인 전망 속에서 지역문학의 현재와 가능성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문인단체의 기관지를 통해 표명된 인식의 차이는 특히 민족문학의 내용이나 지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무크지 『문학과 실천』은 부산문인협회가 정부 당국의 ‘어용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고, “진정한 민족문학과 문학인의 올바른 길을 찾자는 것이 『5·7문협』의 결성 목적”이라고 강조한다(김정환, 『5·7문학 작품집 발간에 즈음하여』, 12-13쪽). 5·7문학인협의회에 뿌리를 둔 부산작가회의가 속간형태로 간행한 기관지 『작가사회』 역시 민족문학을 지향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뜻밖의 경제난이 큰 아픔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 더 크고 무거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의 발전을 막고 있는 남북분단과 민중 또는 민족이 겪고 있는 총체적 아픔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 보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민족문학의 완성을 지향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아픔과 좌절이 있는 현장에 있을 것이다(윤정규, 『속간사를 내면서』, 『작가사회』속간 5호, 1997).

위 인용에서 지적된 “뜻밖의 경제난”은 외환위기로 인해 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사실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고통보다 “더 크고 무거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분단과 여기서 비롯되는 갖은 종류의 민중의 고통이다. 『작가사회』가 이런 고통의 역사적 현장에 있겠다는 것은 지역 또한 민족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민족민중의 “총체적 아픔”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역의 구체적 현실에 착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민중의 고통을 뛰어넘는 데 “민족문학의 완성”이 있다 한 것처럼, 『작가사회』가 추구하는 민족문학의 방향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정치적 대항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역에서 민족과 민족문학의 장래를 숙고하는 데 있어 부산문인협회의 기관지 『문학의세계』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근년에 우리 문단에서 민족문학이며, 민중문학이며, 참여문학이며 각종의 논의가 분분하지만 요는 문학이 대립과 갈등의 변증법적 산물임을 깊이 인식하여 나아가는 것이 문예지 문학의 세계의 편집 진로가 될 것이다.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는 일차적 안목에서 형상에 성공한 작품 수준의 향상과 오늘의 황폐한 민족의 정신적 현실을 차원 높은 문학정신으로 순화시켜 나아가는 진정한 민족문학인의 발굴과 육성에 힘쓸 것이며, 세계 각국의 문학계의 동정과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교류를 시도하여 부산을 중심한 남부권에서 가장 수준높은 발표무대의 한 公器로서 나아가려는 것이 本誌의 使命으로 생각한다(이석, 『창간사』, 『문학의세계』창간호, 1990, 21쪽).

“문학이 대립과 갈등의 변증법적 산물”임을 인식하는 데 “편집 진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문맥으로 볼 때 민족·민중문학이나 참여문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고 대신에 언어적 형상미와 순수한 문학정신을 강조한 듯하다. 형상성과 정신성의 획득에 “진정한 민족문학”이 있다고 한 점에서, 『문학의세계』는 문학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려는 지향을 보인다. “수준높은 발표무대의 한 公器”로 기능하는 데 문예지의 ‘使命’을 둔 것처럼, 『문학의세계』는 문학창출의 여건이나 환경 조성에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문학생산의 여건 확보라는 방향은 『문학도시』로 개제한 뒤에도 이어진다. 특히 부산의 자연·인문지리의 특성과 그 문화적 연관에 대한 인식은 주목을 요한다.

부산이란 도시의 역사와 형성과정, 도시의 내용과 성격, 도시의 장래와 지향 등이 오랫동안 문화의 불모성을 자초했고, 앞으로도 자초할 개연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항구의 속성인 임시정박성(臨時碇泊性)과 표류성(漂流性)은 시민의 정서에 정착성(定着性)과 안주성(安住性)을 심어 주지 못했으며 상공도시가 갖는 변화성(繁華性), 소란성(騷亂性), 잡다성(雜多性)은 시민에게 사유성(思惟性), 정연성(整沿性), 신중성(慎重性) 등을 앗아 갔다.

(...중략...)

결국 부산의 문화예술적 불모성은 부산시민 특히 문화예술인의 무사안일, 은둔도피, 자만자족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김상훈, 『『문학도시』의 변모의 의지』, 『문학도시』발간사, 1995, 17-18쪽).

자연환경과 사회적 변천이라는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 의욕과 신념을 상실한 문화예술인이라는 주체적 요인이 “부산의 문화예술적 불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문화생산의 주체를 특별히 강조한 점에서, 문화예술적 불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은 수준 높은 성취를 독려하는 애정 어린 채찍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은 부산을 문화예술의 불모지대로 기정사실화한다. 특히 부산의 지리적 특성이 시민의 정서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내향적 경계의식, 즉 지역을 타자화하는 지역담론을 내면화한 것이다.³²⁾ 지역은 중앙에 비해 후진적이고 정체되어 있으며 특수하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억압적인 논리가 지역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임시정박성과 표류성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착과 안주에 대한 저항의 계기, 다른 세계를 향한 동경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항구의 속성이란 지정학적 환영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인식은 장소의 허구적 특질에 근거한 환영이므로, 주·객관 양면에서 부산의 문화예술적 불모성은 당연한 사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불모성을 미래의 개연성으로까지 강조할 때, 『문학도시』는 부산시민에게 항구 도시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열등감의 원천으로 삼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32) 내향적 경계의식은 중앙을 향한 구심운동을 유발한다면, 외향적 경계의식은 중심을 벗어나는 원심운동에 지배된다. 전자가 스스로를 타자화한다면, 후자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타자를 지향한다. 황국명, 『경계 혹은 타자로서의 바다』, 『문학도시』, 1999년 가을호, 37쪽 참조. 배제와 선택을 전제로 한 자기와 타자를 준별함으로써 경계야말로 자기와 타자,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을 산출한다고 말해진다. 상호반전 가능한 상대적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경계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효덕, 『표상 공간의 근대』(박성관 역), 소명출판, 2002, 336-339쪽 참조.

지리적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민중을 예측과 억압의 고통에서 해소하려는 정치적 저항이나 문학생산의 여건을 확보하여 문화의 풍요를 성취하려는 시도는 지역문예지의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과제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그것이 문화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문예지가 지역의 삶에 기여하는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지역에 관한 지식, 정보, 담론 및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비판하고, 중앙이 주변을 지배해온 담론구조를 돌파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³³⁾

4. 문화실천의 다원성과 소지역의 매체 경쟁

앞서 지리적 특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문예지들이 추구한 지역문학의 전향도 달라짐을 보았는데, 부산지역에 대한 지리적 낙인을 내면화할수록 문화를 문명과 대립시키고 문화를 향한 심리적 경사를 드러낸다. 부산을 두고 “‘문명’은 있되 ‘문화’는 없는 도시”(김상훈, 같은 글, 17쪽)라는 평가를 사실로 인정한 『문학도시』의 창간사는 정신적 가치이고 문명은 물질적 사실이라는, 문화와 문명 사이의 서열을 드러낸다. 가치로운 정신문화와 비속한 물질문명이라는 서열은 『문학의세계』창간사에서도 확인된다. “문화를 정신적으로 계승시키는 위력”을 지닌 문학은 “문화의 핵심”이므로(이석, 같은 글, 20쪽), 고차원적인 문학 정신으로 황폐한 정신을 순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제일주의정책”을 성토했고 있는 것처럼, 이같은 주장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성장을 전제한다. 말하자면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더할 수 없이 황폐해진 것은 “민족의 정신적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 인식은 ‘민족’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억압,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지역의 특수성을 기민하게 이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 발생한 모순을 문화와 문명의 대립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를 대립적으로 인식할 때, 문화 내부에도 고급문화와 저

33) 이훈상, 『他者로서의 ‘地方’과 中央의 헤게모니』, 『문화·비평·사회』3집, 동아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49-65쪽 참조. 이분법에 근거하여 지방에 대한 왜곡된 지식형성의 과정과 계보를 추적한 이 글은 지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계에 관한 반성적 성찰을 유도한다.

급문화라는 서열이 발생한다. 그런데 부산지역 문예지는 문화를 예술적 저작물 뿐 아니라 일군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 전체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는 대중의 공통적인 가치체계 모두를 문화로 승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때, 이른바 고급문화뿐 아니라 저급문화나 하위문화도 중요한 문화적 실천의 하나가 된다. 이처럼 문화의 서열과 구분이 흐려질 때, 문화실천의 상대성이나 복수성(複數性)이 강화된다.³⁴⁾ 기성작가와 아마추어를 망라한 『생활문학』은 “생활이 문학이요, 문학이 생활”임을 표방하고 “문학은 시인이나 소설가 등 문학인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고 선언한다(정영태, 『내일을 기억하며』, 『생활문학』 권두언, 1990, 12쪽). 문학은 전문 문학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진술은 평범하면서도 과격하다. 그 진술은 작품의 가치평가를 독점하는 제도적 권위를 비판하고, 문학창출과 향유 기회의 보편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문화실천의 다원성과 복수성은 글쓰기의 대중화 민주화를 자극하고, 부산지역 문예지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³⁵⁾ 지역문예지는 학연, 지연(誌緣), 종교, 직업 등 다양한 입장들의 결합을 토대로 구성되고 있다.³⁶⁾ 그 가운데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주거지역을 근거로 한 행정단위별 문예지들이다. 이들 문예지 주체들에게 행정단위별 소지역의 특수성은 아이덴티티의 특징한 표식으로 이해된다. 『수영문예』의 창간사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이와 같은 문화 개념에 대해 R.윌리엄즈, 『이념과 문학』(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2, 21-31, 179-185쪽과 『문화사회학』(설준규, 송승철 역), 도서출판 까치, 1984, 8-12쪽 참조.

35) 문학 전문가가 아니라 “충실한 생활인”으로서 문학에 관한 소망을 담았다는 『시맥』(1990)의 입장도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동인지 『금샘』(2000)의 경우, 『창간의 말』에서 글쓰기를 지도한 기성 문인에게 헌사를 표시하고 있어 기성 문인과 동인 사이에 일종의 사제관계 혹은 도제관계가 형성된 듯하다. 문예지의 범람이라 할 정도로 부산지역에 다양한 문예지가 발행되고 있지만, 글쓰기의 상대성은 가치평가를 배제함으로써 문학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다룬 문예지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이나 문단 내의 비중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36) 부산지역처럼 대도시나 광역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고향’ 개념의 지역 연고성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학연관계망이 지연관계망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정오, 『한국 도시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유대』, 부산대학교원 박사논문, 1999, 114쪽 참조.

우리 앞에 태평양으로 이어진 광안바다가 끝없이 출렁이며 우리를 새롭게 일깨우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정기를 이은 금련산 자락이 깃을 펼치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안아 줍니다(정진채, 『문화와 예술의 꿈과 향기를』, 『수영문예』창간사, 1996, 12-13쪽).

바다나 산과 같은, 거주 지역의 환경적 특질에 대한 각성된 느낌은 그 장소의 자연적 생태적 독특성의 보존을 위한 정신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또 “문화와 예술의 전통과 향기가 찢줄로 이어져 내려온 수영장”라고 할 때, 장소는 상품의 장소나 상품 소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장소가 된다. 이처럼 한 장소의 자연적 역사적 특질을 보존하고 환기하는 일은 상품과 화폐의 지배에 대한 대안적 미학을 탐구할 수단이 될 수 있다.

특정 장소와의 통일적인 관계를 미학화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 믿음에 따라 『동래문학』은 지역적 특성의 전사(前史)를 선사시대로까지 소급한다.

모든 분야의 문화활동은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의 튼실함이야말로 온 세상을 드리울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제공하여 준다. 하늘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성목(神聖木)은 어디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뿌리내린 토양 위에 굳건히 서있기 마련이다. 하여 그 지방의 향기로운 토질은 그 특색에 걸맞은 신성목을 길러낸다(정형남, 『창간호를 내면서』, 『동래문학』창간사, 1999, 1쪽).

여기서 문화는 “어디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신성목, 곧 식물에 비유된다. 식물은 뿌리를 갖고 대지로부터 자라야 하는 것처럼, 신성목으로서의 문화는 뿌리를 내려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 장소를 발견해야 한다. 그 장소는 심화된 시간, 즉 특질이 부여된 기억의 장소이다. 이런 장소를 흔히 고향이라 하거니와, 문화활동은 그것이 뿌리내릴 대지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장소사랑³⁷⁾은 장소에 신성한 특질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이동할 수 없는 신성목과 같은 것이므로, 신성목으로서의 문예지를 길러낼 “향기로운 토질”은 특정 장소의 신성성, 변별적인 기념비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37) 장소사랑은 물질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감정적 관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Yi-Fu Tuan, 『장소사랑』(최지원 역), 『지역문학연구』76집, 2000, 164쪽 참조.

기념비적 공간은 ‘우리 고장’이라는 집단적 조직화에 대한 동의를 형성할 수 있다.³⁸⁾ 우리 고장만이 갖고 있는 것, 즉 다른 곳에는 없지만 여기는 있는 지역의 특수성은 문화활동을 자극하는 탁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장소의 허구적 특질을 강화하여 지역의 전통을 고안하거나 문화유산을 상업화할 위험도 있다.³⁹⁾ 다른 한편, 소지역의 장소의식은 배타적 적대적인 장소경쟁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인구도 300명”에 이르는 수영이 문화예술에 있어 “부산을 선도”한다는 자긍심은 동래는 “부산의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라는 자부심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장소의 특질에 열광하여 문화적 성취를 과장할 때, 장소경쟁은 다른 장소에 대한 공간적 낙인에 이를 수 있다. 『북구문학』의 창간사를 보자.

사람들은 부산 문화를 말하면서 흔히들 문화의 불모지라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과연 그 사람들은 부산문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 왔는지, 정말이지 자신있게 말해주길 바란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의 무책임함을 우리 북구문학인만이라도 타파해야 될 줄 안다(이원우, 『<북구문학>을 내면서』, 『북구문학』창간사, 2002, 11쪽).

문화 불모지라는 무책임한 자조를 “북구문학인만이라도” 타파하자는 의지는 동지의 격려사와 비교하면 그 진의가 보다 선명해진다. 부산문화협회장은 격려사에서 “북구가 문화의 후진지역이라는 말들은 간혹 듣지만” “다양한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고 하였다(정진채, 『<북구문학> 창간에 부쳐』, 『북구문학』창간 격려사, 14쪽). 그 믿음은 늘어나는 아파트와 높아지는 인구 밀도에 근거한 진단이다. 그러나 이 격려사에서 북구의 문화적 불모성 내지 후진성에 대한 평가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적

38) 기념비적 공간은 구성원에게 구성원됨의 이미지, 즉 그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집단적 거울로서의 인식 효과와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권력과 지혜의 공유라는 동의의 효과를 갖는다. H.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1994, pp.220-221 참조.

39) 근대성의 최종적 승리는 비근대세계의 소멸이 아니라 그 인공적인 보존과 재구성에 있는 이치와 같다. D.Harvey,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p.302 참조.

낙인과 다르지 않다.⁴⁰⁾

그러나 게리멘더링처럼, 행정단위별 장소 구성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공간생산 논리에 지배된다. 부산지역의 각종 신도시, 신시가지가 그러하듯, 도시공간의 재구성은 도시 내 다양한 활동 장소와 수입, 분배의 변화, 직업기회의 변화와 주거영역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런 변화에는 외부의 강제뿐 아니라 내부의 공모도 작용한다.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리된 신설구인 것처럼, 이런 이유에서 행정단위별 소지역은 정체성의 물리적 정박지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사실은 도시의 공간 재구성에는 폭력, 공격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도시재개발 역시 도시빈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격적인 대지를 사적인 거래대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성찰함이 없다면, 지역간의 문화적 경쟁은 공간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내포된 폭력의 흔적을 은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⁴¹⁾

5. 보편성, 탈이념성, 세계성의 착종

부산은 유동·유입인구가 많은 대도시이다. 50년대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것은 주거, 직업, 교육, 문화 등 기회의 배분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한다. 오늘날 각종 거대건축물, 대형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동서로 깔린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거대한 놀이공원, 넘쳐나는 최근의 유행과 생산물 등으로 보면, 부산은 대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발터 벤야민의 표현으로, 부산은 상품의 신성한 장소, 자본주의 상품의 사원이다.⁴²⁾ 따라서 대도시 부산은 자연적 특성이나 지역의 전사(前史)에 의해 충분

40) 통상 고향은 세계의 중심, 신성불가침의 경계로 여겨진다. 그래서 장소고착적인 문화는 혈연이나 장소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방인이나 다른 장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쉽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구동희, 심승희 역), 도서출판 대운, 1999, 239-246쪽 참조.

41) 이런 배타적인 경쟁은 동계올림픽이나 Apec 유치전에서 실감한 바 있다. 유사한 국제영화제나 각종 지역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동질성을 복제할 수도 있다. D.Harvey,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pp.296-297 참조.

42) G.Gillich, *Myth and Metropolis*, Polity Press, 1996, pp.105-126 참조.

히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공간이다.

대도시의 보편성을 지닌다는 맥락에서, 부산지역에 장소애나 장소의식을 의도적으로 고양하거나 환기하고자 하지 않는 문예지가 출현한다. “보편적 서정”을 추구한 『신서정시그룹』이 그러한 사례가 된다. 신서정시 동인들은 새로운 감성에 기초를 둔 보편적 서정성을 추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폭력적인 이념이나 자학적인 해체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시는 이러한 새로운 서정시의 몫이 되지 않을까 한다.(…중략…)

고전적 서정시가 자연과의 동화내지 자연으로의 복귀였다면 현대의 신서정은 현대 문명과의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업사회와의 화해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정영태, 『서정, 왜 신서정인가』, 『신서정시그룹』창간사, 1990, 14-15쪽).

“자연 속의 전원적 삶에 기초”한 전통적 서정과 달리, 『신서정시그룹』이 추구하는 서정은 인공의 문명 속에 삶의 기반을 둔 도시적 서정이라 하겠다. 이 새로운 서정은 자연을 절대가치로 추구하지 않으며 문명을 비속하다고 경멸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산업사회의 문명은 새로운 세계, 예를 들어 우주적 공간이나 전자적 세계를 개시하는 토대로 여겨진다.⁴³⁾ 가치보다 사실에 근거하여 현대문명이나 산업사회와 화해하고자 할 때, 산업화 과정의 모순에 대한 인식은 끼어 들 틈이 없다. 더 나아가 당위적인 가치를 표방하거나 그 가치를 해체하려는 시도 역시 신서정의 표적일 수 없다. 그래서 『신서정시그룹』은 80년대의 민중시와 90년대의 해체시를 각각 폭력적 자학적이라고 비판한다.

부산지역 문예지는 특히 9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형식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일상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강조한 『젊은시인』은 “해체주의니 초현실이니 포스트모더니니 하는 요상한 일과성의 분과”를 거부한다(김태수, 『새로운 젊은 시인을 위하여』, 『젊은 시인』창간사, 1994, 13쪽). 『행간』~동인은 ““해체”라는 상표를 붙인 시장경제 속의 상품으로 전락할 상당한 위험성”을 경계한다. 이들 동인에게 “시는 사원도 시장도 아니다”. 즉

43) 『신서정시그룹』을 주재한 정영태는 우주 공간이나 테크놀로지의 세계로 시각을 확장시켰다고 이해된다. 강남주, 『중심과 주변의 시학』, 도서출판 전망, 1997, 343-345쪽 참조.

시는 성(聖)도 속(俗)도 아니며, 해방의 무기도 시장의 상품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의 무력”, 즉 기능적 효율성의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동인의 말』, 『행간』창간사, 1994, 3-4쪽). 시의 무력성은 문학과 삶 사이의 고통스러운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사실에 대한 당위적 가치의 강제 혹은 대상에 대한 언어적 매김은 대상을 속박하는 “허위요 가식”인 까닭이다. 그래서 『시작업이후』동인들은 “해체 따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고, “사물의 배후에 숨은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자 한다.

세상은 그 자연스런 흐름이 곧 기쁨이지요. 세상은 시인보다 아름답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되는 것. 무기력한 시인이여. 그 철두철미한 시정신에 우선 찬사를 보냅시다(『제1집을 준비하며』, 『시작업이후』창간사, 1995, 12쪽).

이들 동인에 의하면, 세상은 원래 ‘자유’로운 대상이다. 이런 대상 세계가 “시인보다 아름답”다고 함은 삶(세상)이 시(문화)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말을 바꾸면, 시인보다 아름다운 삶은 언어로 족쇄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유동적이며 독특하다는 것이다. 이는 삶이 시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삶에 의존한다는 뜻과 같다. 삶에 대한 시의 의존성을 염두에 둔다면, 시인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풍부하고 유동적인 삶의 개별현상을 주목할 때,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지역의 상황도 특수성도 지배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파나 이념이니 하는 것을 초월하여 소설 중심의 순수 문학지”를 지향하겠다는 『소설마을』은 “지역성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고, “부산을 근거로 하여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라는 방향”을 설정한다(『『소설마을』의 미래를 위하여』, 『소설마을』창간사, 2002, 16쪽). 지역성을 탈피하여 세계를 지향할 때, 부산은 세계문학을 향한 원심운동의 근거지가 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 노력은 『부산펜문학』에서도 확인된다. “항상 ‘우물안의 개구리’마냥 우리 민족끼리 즐기는 문학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문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며, 이제 “지역을 벗어나 세계를 향해 달려가며 ‘부산문학’의 큰 힘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정순영, 『‘부산펜문학’ 창간의 깃발을 높이 들며』, 『부산펜문학』창간사,

2002, 7쪽).

광역도시의 보편성에서 세계문학으로 진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 문예지는 특정한 가치의 표방을 거부하게 된다. 말하자면 도시문명의 보편성은 탈이념성, 탈지역성, 세계성과 연관되는 것이다. 지역문예지의 이같은 경향은 서울 중심의 문화적 유행에 편승하지 않겠다는 결의이기도 하고,⁴⁴⁾ 중앙문단의 문화권력과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혐오이기도 하다. 또 지역문학은 폭넓은 전 지구적 전망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지역이 고립무원의 장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이 변화는 세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세계적 전망을 지닐 때 지역의 삶이 보다 확실히 드러나며,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특정 지역의 변별성에 대한 자각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⁵⁾

그러나 지리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자기 밖의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왜곡된 선망의식일 수 있다.⁴⁶⁾ 물질문명으로 ‘파괴’해진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부산펜문학』의 지향은 “정치, 사회, 종교, 인종을 초월”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러한 항목에 착근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소비욕망이 소비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듯이, 화려한 도시의 문명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문예지는 지역사회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⁴⁷⁾ 지리적으로 불평등한 공간변형이 우리 근대화의 밑그림일 뿐

44) 해체시는 다원주의적 개방적 태도라는 긍정면을 지니지만 세속적 경박성, 주관적 상대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고 평가된다.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비평사, 1992, 153-154쪽 참조.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해체시는 권위주의의 담론과 낡은 제도를 전복하고 평등주의 담론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다고 이해된다. 김경복, 『풍경의 시학』, 도서출판 전방, 1996, 42-56쪽 참조.

45) J.W.Miller, 『지역 연구의 전망과 과제』(한정호 역), 『지역문학연구』3호, 1998, 186-187쪽 참조.

46) 해양문학의 개화를 목적으로 한 『해양과 문학』의 창간사에 의하면, 바다는 도전하고 정복할 대상이다. 16세기 이후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서구는 해양문학의 개화를 맞이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을 통해 식민지 개척에 나선 제국주의 팽창이나 서구 해양문학의 전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결여한 진술이다. 천금성, 『출범의 닻을 올리며』, 『해양과문학』창간사, 한국해양문학가협회, 2003, 10-11쪽 참조.

47) 80년대 이후 탈산업화, 산업구조조정, 자본의 국제화로 부산지역의 불균등은 보다 심화된다고 평가된다. 초의수, 『도시공간으로 본 ‘부산’ : 자본의 공간지배와

아니라, 광역도시 부산은 도시 형성에 있어 농촌 잉여생산물의 집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따라서 도시형성에 있어 외부의 강제와 내부의 공모를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⁴⁸⁾ 그렇지 않을 때, 도시적 서정의 보편성·탈지역성·탈이념성·세계성은 기원의 흔적, 노동과정의 흔적, 생산에 함축된 사회관계의 흔적을 제거하는 다국적 자본주의를 내면화할 수 있다.

6. 매체의 지속성과 변증법적 문화전략

부산지역 문예지는 문학운동의 전위가 되려는 주체들이 한편으로 인간해방이라는 정치적 대항과 다른 한편으로 문학의 창출과 향유의 여건 조성에 복무해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매체 장악의 지속성과 매체의 방향성에 대한 집단적 의식적인 노력과 싸움을 요청하였다. 이런 싸움 과정에서 지역문예지는 평단을 형성하는 강력한 토대였다는 사실은 주목될 만하다. 특히 80년대 중반 『창작과 비평』~『문학과지성』이 폐간된 상황에서 동인·무크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비평가들은 매체 지배의 현실적 문제뿐 아니라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 유통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80년대 부산지역 문예지 가운데 지역평단 형성에 중요한 무크지는 『지평』(1983)과 『전망』(1984)이다. 두 매체의 개별 필자 가운데 겹치는 경우도 있어 상호간의 길트기가 확인되지만, 매체 사이의 현실적 차이 또한 분명해 보인다. 『지평』은 삶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우리는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삶이 이 곳, 이 때의 상황에 가치로운가를 묻는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이웃에 대한 행복을 생각하는 당위가 숨겨져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이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지평』3집 발간사, 1984)

도시 성격의 변화』, 『오늘의문예비평』~1998년 가을호, 120-122쪽 참조.

48) 도시는 사회적 잉여생산물의 지리적 집중을 통해 형성되며 그 결과로 세계는 도시와 시골 사이의 엄격한 위계로 이루어진다. D.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p.216, p.237 참조.

가치로운 삶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이며, 그 가치는 ‘당위’로 이해된다. 당위적인 가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지평』은 주체가 지금 이곳의 상황에 말을 건넨다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와 분단사회라는 이중고”라는 세계 상황을 두고 개인과 사회의 양극을 운동하는 긴장된 삶의 태도를 요구한 것처럼, “사회적 힘을 개인적 의지에 수렴”하고 “개인적 의지를 사회적 힘으로 확산”(『지평』 4집 발간사, 1985)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평』의 지역문학운동은 기능적 문화전략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주체의 창조적 개입 혹은 세계의 당위적 상태를 문제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를 향한 침식은 “모든 억압과 착취, 부정과 부조리로부터 나와 이웃을 해방하는 행위”(『지평』 5집 발간사, 1986)로 이해된다. 이처럼 문학이 고무할 특정한 가치를 전경화하고 있는 만큼, 『지평』의 운동논리는 궁극적으로 ‘해석’보다 ‘실천’을 우위에 둔다고 하겠다. 주체의 힘과 의지를 세계에 강제하며 특정 사회의 재구성을 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평』의 기능적 문화전략은 가치로부터 실천을 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전망』은 문화영역을 장악한 상업주의와 권위주의를 자기 세대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권위주의도 우리세대의 극복과제의 하나이다. 삶 자체가 역사적 본질이면서 사건적 본질로서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이며, 삶의 의미를 풍요하게 해야 하고 자유롭게 해야 할 문학 자체도 삶의 양식으로서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의 텍스트는 문학이나 삶 자체가 아니라 문학찬양가나 문학비난가 사이의 관계이다.(『전망』 2집 발간사, 1985)

『전망』의 방향은 문학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권위주의 철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동인은 비평의 객관성을 강조한다. 비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주·객의 확연한 구별과 거리를 요구한다. 말하자면, 세계와 엄정한 거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세계의 정체가 어떠한가를 냉정하게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망』은 문학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보다 세계 속에 문학이 어떻게 있느냐를 문제삼는다. 냉정한 객관적 거리를 두고 문학의 존재방식을 주목한 점에서, 『전망』은 존재론적 문화전략을 지향한다고 하겠다.⁴⁹⁾

위 인용에서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삶이나 문학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되어

야 할 텍스트”라는 점이다. 말을 바꾸면, 우리는 객관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몰든 텍스트를 본다는 뜻이다. 역사는 없고 텍스트(글쓰기, 해석)가 있을 뿐이라는 해체주의적 울림이 없지 않지만, 강조는 다양한 해석가능성에 대한 권위주의의 통제라는 데 있다. 권위주의 텍스트는 찬양 아니면 비난뿐이므로 우리는 잘못 설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전망』은 가치로부터 해석이 비롯된다는 것,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므로 권위주의의 일방적 해석, 가치평가는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지평』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여 현실에 몸을 싣고자 한다면, 『전망』은 비판적 해석에 치중하여 삶과 문학에 반성적 질문을 던진다고 하겠다. 지리적 불평등이라는 지형학적 상상력에 근거할 때, 가치로부터 실천이 비롯된다는 『지평』의 기능적 문화전략과 가치로부터 해석이 발생한다는 『전망』의 존재론적 문화전략은 변증법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하겠다.⁵⁰⁾ 이런 통합의 과제를 떠 안은 것이 1991년 봄호로 창간된 『오늘의문예비평』이다. 편집동인으로 참여한 남송우, 구모룡, 박남훈, 황국명, 이상금, 정해조, 정형철은 『지평』과 『전망』에 참여한 비평가들인데, 이들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실천과 해석의 동심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⁵¹⁾

창간 이래 결호없이 매체의 지속성을 확보한 『오늘의문예비평』은 “탈중심화를 지향하는 지역문화운동”을 표방하고, 비평전문지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비평정신을 강조하였다. “문학비평의 객관성 상실”은 “민족문학의 방향상실”, 곧 “문학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할 때, 이들의 지역문화운동은 민족문학의 전망 속에 추진됨을 알겠다. “비평정신이란 가치지향의식”이라 하여 “비평의 본래 정신의 회복”을 강조한 『오늘의문예비평』은 80년대 문학세대에 대해서도 집단

49) 기능적 문화전략과 존재론적 문화전략에 대해 C.A.반 피어슨, 『문화의 전략』(오영환 역), 법문사, 1980, 20-26쪽 참조.

50) 『지평』은 특수성과 보편성의 통합을 꾀하는 “변증법적 지역문화운동”을 개진했고, 『전망』은 중심부를 해체하여 주변부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지방주의 지역문화운동”을 펼쳤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구모룡, 『탈중심의 논리-지역문학론』, 『한국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 열음사, 1992, 174-175쪽 참조.

51) 연구자 자신이 『전망』과 『오늘의문예비평』의 동인이었던 만큼, 이들 문예지의 의의를 평가함에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 동학 여러분의 비판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것이다.

이익, 기존문학의 질서와 체제를 넘지 못한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양한 소집단의 문학적 지향에 근거한 문학의 당파성 자체를 문제시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삶의 한 방향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당파성이 소집단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상업성과 야합함으로써 비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현상이다(『비평전문지를 창간하면서』, 『오늘의문예비평』창간사, 1991, 16쪽).

여기서 ‘당파성’을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의문예비평』은 가치의 상대성이나 다원성, 비평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양성을 빌미로 파당적인 문학권력을 형성하거나 상업주의 출판과 결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10주년 창간기념호에서도 확인된다. 다양한 비평적 입장들의 길항과 상호교섭을 강조하면서, 편집인 남송우는 “어느 한 비평적 경향이 비평세계를 주도하는 전일적 비평담론만 행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평의 비평을 활성화”했다고 술회한다.⁵²⁾

비평 혹은 해석의 전제적 현상에 대한 비판이므로, 메타비평은 평단의 전형적인 가치평가와 소집단들간의 분파적 단절 및 여기서 비롯된 역기능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비평전략이라 할 수 있다.⁵³⁾ 이처럼 가치와 비평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동시에 메타비평을 통해 비평의 객관성을 추구한 점에서, 『오늘의 문예비평』은 비판적 해석을 강조하였다고 하겠다.⁵⁴⁾

그렇다면, 창간사에서 강조된 것처럼, “생활세계와 정신문화의 황폐화와 파행” “문화적 열악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모순”

52) 남송우, 『비평의 터 넓히기 10년』, 『오늘의문예비평』2001년 봄호, 23쪽.

53) 실제로 창간 동인은 1985년 10월부터 메타비평과 관련된 세미나를 가졌다. 7차에 걸친 세미나에 강경석, 구모룡, 남송우, 명형대, 민병욱, 박남훈, 박준덕, 이상급, 정해조, 정형철, 황국명 등이 참석했고, 세미나의 성과물로 『문화과 지성』 비판, 도서출판 지평, 1987을 출간하였다. 비평의 비평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민병욱, 『비평의 비평이란 무엇인가』, 『비평의 비평과 문학정치학』, 황토, 1992, 13-45쪽 참조.

54) 메타비평의 강화와 함께, 90년대 한국문학의 쟁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현실주의, 여성주의, 탈식민주의, 담론,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환상문학, 아나키즘과 생태주의를 다루고 90년대 비평담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폐해”에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한 정치·경제·문화의 왜곡현상은 가치(정치)에 근거한 사회적 실천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나 사회는 공간의 새로운 재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역은 해석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살아가는 현장으로서 부산지역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에 들면서 구체적으로 표면화된다. 2000년 봄호의 동아시아담론 특집과 2001년 부산학 점검에 이어, 2002년 봄호는 특집으로 <부산성·주변성·근대성>을 마련한다. 미국의 ‘군국주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횡행하는 “파시즘적 현실”에 직면하여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유토피아 의식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부산의 공간적 의미를 점검”한 것이다.

사실상 부산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이곳에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역(주변부)을 생산하는 국가권력과 세계체제를 문제 삼기 위해서도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다(『문학의 유토피아 지향성과 근대성 비판』, 『오늘의문예비평』 2002년 봄호, 17쪽).

특집에서 지역성과 타자성의 발생 과정 및 그 의미를 추적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 지역담론이 생산되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문예비평』은 지역의 삶을 통해 국가권력과 세계체제를 비판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양식의 메커니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속에서 세계체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지정학적 무의식을 드러낸 것이다.⁵⁵⁾ 이같은 공간의식은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대결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실천과 해석이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문화전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통합의 긍정적 경험을 어떻게 지역 사회 전체의 집단적 투쟁과 의식 형성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남은 과

55) 지역문예지의 지리적 상상력은 개인의 소산으로 볼 수 없다. 특정한 장소 속에 놓인 자신의 위치를 집단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지리적 상상력은 인식의 지도그리기 혹은 지정학적 무의식(geopolitical unconscious)이라 부를 수 있다. 지정학적 무의식 혹은 인식의 지도그리기는 전통적인 계급범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체제를 이해하려는 집단적 노력이다. F.Jameson, *The Geopolitical Aesthetic*, Indiana Univ.Press, 1995, pp.1-3 참조.

제라고 하겠다.⁵⁶⁾

지금까지 부산지역 문예지를 살펴본 결과,

- ① 문예지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지리적 불평등을 돌파하는 전위의 지위를 열망하고,
- ② 경제적 이익의 확대를 추구하는 직업적 조직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문학운동 조직을 형성하나 매체의 단명성이라는 어려움을 지닌다.
- ③ 부산지역 문예지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의 차이에 따라 연속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이나 문학활동의 여건과 환경 조성이라는 방향을 지닌다.
- ④ 문화실천의 상대성, 다원성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입장에 근거한 문예지의 다채로움을 드러내고
- ⑤ 도시문명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탈지역, 탈이념과 함께 세계성을 추구하며
- ⑥ 매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해석과 실천이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문화전략을 지닌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부산지역 문예지를 특정한 장소에 근거한 지리적 상상력의 산물로 보고, 그 현황과 특성을 문학운동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리적 상상력은 타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까닭에, 본고에서 지리적 의식과 문학운동은 지역 문학의 존재방식이며 동시에 지역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6) 권력구조의 급진적 변화가 기존의 공간서열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분권은 곧장 지역간 경제적 평등과 문화적 자원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주의한 일이다. 그래서 집단적인 투쟁과 의식의 형성 노력이 없다면, 혁명 이전의 공간조직이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구조를 재생산한다고 지적된다. E.W.Soja, *Postmodern Geographies*, Verso, 1989, pp.89-105 참조.

첫째, 5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을 그 실천 형태나 종별, 기능별, 간별, 장르 분포의 변화에 따라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지역의 문예지는 단명을 면치 못하다가 장르별로 분화되고, 의식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다가 점차 다양화로 진전되었다. 50년대 15종, 60년대 13종이 창간된 5-60대 문예지는 종별로 동인지가 압도적이고, 간별로는 부정기가 주류를 이루며, 대체로 단명하였다. 학생문단의 형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특정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뚜렷하며, 문인단체의 기관지가 증대하였다.

22종이 창간된 70년대의 부산 문예지는 시동인지가 대부분이지만, 장르별로 전문화될 조짐을 보인다. 새로운 동인지의 창간은 발표 지면의 확보라는 지역 문인의 절박한 사정과 관련된다. 유가지(有價誌)로의 전환이 있고, 간별로는 부정기 혹은 연간지가 대종을 이루었지만, 월간, 격월간, 계간도 자리를 잡게 되며, 아동문학지의 증대도 주목할 만하다.

7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 모두 37종이 새로 창간된 80년대 문예지는 동인·무크지로 대표된다. 이 시기의 동인·무크지는 단순한 발표 지면이 아니라 억압적인 현실에 맞선 의식의 싸움을 펼치는 매체였다. 창작 갈래, 이념, 직업,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 기관지의 분화가 있고, 소설의 지면이 확대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여성문인의 발표 무대가 크게 확장되었다.

소비사회의 징후를 드러낸 90년대에 65종, 2000년 이후 10종 등 부산 지역에는 문예지가 새로 창간되었다. 이 시기 부산문예지는 거의 모든 장르의 전문지 및 동인지가 생산되는 다양화로 특징된다. 종합지 및 전문계간지의 증대로 간별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다양한 문예지들은 글쓰기의 민주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 거의 모든 문예지가 유가화되고 전문출판사의 독자적인 문예지 발간도 새롭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부산지역 문예지는 참여 주체들이 연대한 동인지가 주류를 이룬다. 종별로 종합지 및 전문지의 성장이 뚜렷하며, 간별로 볼 때 전문지일수록 계간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장르별로 보면 시(56종), 종합(55종), 수필(10종), 아동문학(9종), 소설(5종), 비평(1종), 기타(26종)로 시문학지가 우세하다. 유가지(有價誌)가 압도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잡지도 출현하

였다.

둘째, 우리의 행동과 사유가 장소의존적이며,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문예지의 생산과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 각 문예지의 문학적 이념적 동기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 문예지는 처음부터 지리적 불평등을 지각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문학운동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문예지 참여 주체는 그런 운동을 주도하는 전위의 지위를 열망하였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정치문화적 투쟁의 토대로 삼고, 지역(특수성)은 민족(보편성)을 사유할 수 있는 단서임을 암시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의 문학운동은 지속적인 매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적 억압, 독자의 무관심, 재정적 곤란, 지역출판의 영세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 문예지는 단명성을 면하기 어려웠고, 매체의 단명성은 운동주체에 부단한 자기희생을 요구하였다. 자기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문예지는 비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운동주체의 윤리적 태도로 매체 장악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예지는 후원자의 지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편집권의 독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역 문예지는 매체 지배도 문제지만 지역 내부의 다른 매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부산작가회의 기관지와 부산문인협회 기관지는 부산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보였고, 그 결과 매체는 해방을 위한 정치적 대항과 문학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엇갈린 방향을 드러내었다.

문화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 전체라는 인식하에서, 부산지역 문예지는 문화실천의 상대성과 복수성(複數性)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기성작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하지 않는 문예지가 등장했고, 특히 다양한 입장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문예지가 출현하였다. 그 가운데 행정단위별 문예지는 소지역의 특수성을 경쟁적으로 과시하였다. 특정 장소와의 관계를 미학화한 시도는 상품과 화폐의 지배에 맞서는 대안적 미학이 될 수 있지만, 장소의 허구적 특질을 강화하거나 다른 지역에 대한 공간적 낙인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

소지역의 특수성을 주목한 것과 달리, 부산이 지닌 대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주목한 경우도 있다. 산업사회의 현대문명에 근거를 둔 보편적 서정을 추구하거나 풍부한 삶의 개별현상을 주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념에 비판적이며 더 나아가 지역성을 탈피하고 세계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지역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간과함으로써 보편성·탈지역성·탈이념성·세계성 추구는 다국적 자본의 논리를 내면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문예지는 지역 평단 형성의 강력한 토대라는 맥락에서, 대표적인 매체의 운동 방향과 전략을 살폈다. 가치로부터 실천이 발생한다는 『지평』의 기능적 문화전략과 가치로부터 해석이 비롯된다는 『전망』의 존재론적 문화전략은 『오늘의문예비평』에서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보였다. 그 통합의 긍정적 경험을 지역 사회 전체의 의식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부산, 문예지, 지리적 불평등, 지리적 상상력, 지역담론, 지역특수성, 매체경쟁, 문화전략, 공간적 낙인

참고문헌

- 강남주, 『목마-서정시의 확립』, 『부산문학』 15호, 1984, 6쪽.
- 강남주, 『중심과 주변의 시학』, 도서출판 전망, 1997, 343-345쪽.
- 구모룡, 『지역문학운동의 과제와 방향』, 『젊은 세대의 문학』, 시로, 1986, 2-29쪽.
- 구모룡, 『고석규, 혹은 역설의 비평가』, 『현대시학』, 1991 3월호.
- 구모룡, 『탈중심의 논리-지역문학론』, 『한국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 열음사, 1992, 174-175쪽.
- 구모룡, 『지역문학: 주변부적 가능성』, 『제유의 시학』, 좋은날, 2000, 240-244쪽.
- 김경복, 『공경의 시학』, 도서출판 전망, 1996, 42-56쪽.
- 김병규, 『세계문학에의 발돋움』, 『오늘의문학』 창간사, 1977, 4쪽.
- 김상훈, 『『문학도시』 그 변모의 의지』, 『문학도시』 창간사, 1995, 17-18쪽.
- 김 영, 『새벽길 떠난 향과 선생님』,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이주홍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도서출판 세한, 2001, 51-52쪽.
- 김용규, 『반주변부지역 문화의 전망』, 제4회 요산문학제 문학심포지엄 자료집 『우리 땅에서 민족과 세계를 본다』, 도서출판 전망, 2001, 78-79쪽.
-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시와시학』, 1991년 겨울호, 1992년 봄호.
- 김정오, 『한국 도시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유대』(부산대대학원 박사논문, 1999), 114쪽.
- 김정환, 『5·7문학 작품집 발간에 즈음하여』, 『문학과실천』 창간사, 1987, 12-13쪽.
- 김정환, 『격려의 말』, 『문학과현실』 1집, 1989, 10쪽.
-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비평사, 1992, 153-154쪽.
- 김중하, 『해방공간의 부산문학』, 『부산시사』 4권, 부산시, 1991.
- 김천혜, 『부산문학의 오늘과 내일』, 『오늘의 문학회』, 지평, 1985, 43-44쪽.
- 김태만, 『부산 문화연구 성과를 통해 본 ‘부산학’ 활성화 방안』, 『오늘의문예비평』, 2003년 겨울호.
- 김태수, 『새로운 젊은 시인을 위하여』, 『젊은 시인』 창간사, 1994, 13쪽.

- 남부문학 동인, 『남부문단의 종합문예지 지향』, 『남부문학』~창간사, 1977, 9쪽.
- 남송우, 『고석규, 그 잊혀진 미완의 비평적 행로』, 『부산문학』T7집, 1985.
- 남송우, 『지역시대의 문화논리』, 전망, 1995, 211-229, 230-243쪽.
- 남송우, 『생명과 정신의 시학』, 전망, 1996.
- 남송우, 『비평의 터 넓히기 10년』, 『오늘의문예비평』, 2001년 봄호, 23쪽.
- 민병욱, 황국명, 백하현, 『‘문학과 지성’ 비판』, 도서출판 지평, 1987.
- 민병욱, 『비평의 비평이란 무엇인가』, 『비평의 비평과 문학정치학』, 황토, 1992, 13-45쪽.
- 박문하, 『부산문학과 문단의 근황』, 『재부작가론, 작품집』, 문협부산지부, 1974, 146쪽.
- 박정상, 『부산경남의 신문잡지 출판고-1945.8.15에서 1950.6.25까지』, 『전망』T1집, 1984.
- 박정상, 『동란기 부산경남 지방의 신문잡지 출판고』, 『전망』2집, 1985, 283쪽.
- 박철석,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 『지역문학연구』2호, 1998, 54쪽.
-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2호, 1998, 115쪽.
-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 박홍배, 『고석규 연구』, 『재부작고시인』(구연식 외), 아성출판사, 1988.
- 부산문인협회 편,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 부산발전연구원 편, 『부산 사회문화의 이해』, 부산발전연구원, 1997.
- 부산시·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2001.
- 소설마을 편집동인, 『『소설마을』의 미래를 위하여』, 『소설마을』~창간사, 2002, 16쪽.
- 송창우, 『전쟁기 부산이 낳은 동인지 『신작품(新作品)』』, 『지역문학연구』6호, 2000.
- 시작업이후 동인, 『제1집을 준비하며』, 『시작업이후』~창간사, 1995, 12쪽.
- 신라대부산학연구센터 편, 『부산학총서』(1)(2), 신라대출판부, 2003, 2004.
- 오늘의문예비평 편집동인, 『비평전문지를 창간하면서』, 『오늘의문예비평』~창간사, 1991, 16쪽.

- 오늘의문예비평 편집동인, 『문학의 유토피아 지향성과 근대성 비판』, 『오늘의 문예비평』~탈간사, 2002년 봄호, 17쪽.
- 원 광, 『웅달샘이 되었으면……』, 『실상문학』~창간사, 1989, 18쪽.
- 윤정규, 『새 지평을 모색하던 50년대 부산문단』, 『문학과세계』, 1990 창간호, 212, 214-215쪽.
- 윤정규, 『속간사를 내면서』, 『작가사회』~축간 5호, 1997.
- 이 석, 『창간사』, 『문학의세계』~창간호, 1990, 21쪽.
- 이용성,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국학논총』~37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3, 193-194쪽.
- 이원우, 『<북구문학>을 내면서』, 『북구문학』~창간사, 2002, 11쪽.
- 이훈상, 『他者로서의 ‘地方’과 中央의 헤게모니』, 『문화·비평·사회』3집, 동아대인문과학연구소, 2001, 49-65쪽.
- 임수생, 『시와 자유-민중의 울림을 시로 표출』, 『부산문학』~15호, 1984, 10쪽.
- 임태우, 『고석규 문학 비평연구』, 『현대문학연구』~146집, 서울대대학원, 1993.
- 정순영, 『‘부산펜문학’ 창간의 깃발을 높이 들며』, 『부산펜문학』~창간사, 2002, 7쪽.
- 정영자, 『배토-여류문학, 그 다양한 장르』, 『부산문학』~15호, 1984, 8쪽.
- 정영태, 『내일을 기약하며』, 『생활문학』~창간 권두언, 1990, 12쪽.
- 정영태, 『서정, 왜 신서정인가』, 『신서정시그룹』~창간사, 1990, 14-15쪽.
- 정진채, 『문화와 예술의 꿈과 향기를』, 『수영문예』~창간사, 1996, 12-13쪽.
- 정진채, 『<북구문학> 창간에 부쳐』, 『북구문학』, 2002 창간호, 14쪽.
- 정형남, 『창간호를 내면서』, 『동래문학』~창간사, 1999, 1쪽.
- 조갑상, 『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 경성대출판부, 2000.
- 좌 담 『地方·地方文化·地方文學』, 『오늘의문학』, 1977 가을 창간호, 10쪽.
- 지평의문학 편집위원, 『창간호를 내면서』, 『지평의문학』~창간사, 1993, 14쪽.
- 천금성, 『출범의 닳을 올리며』, 『해양과문학』~창간사, 2003, 10-11쪽.
- 초의수, 『도시공간으로 본 ‘부산’: 자본의 공간지배와 도시 성격의 변화』, 『오늘의문예비평』, 1998년 가을호, 120-122쪽.
- 최병두,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간정치경제학』, 『오늘의문예비평』, 1998

- 년 가을호, 41-57쪽.
- 행간 동인, 『동인의 말』, 『행간』~창간사, 1994, 3-4쪽.
- 황국명,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 도서출판 지평, 1988, 153-193, 259-260쪽.
- 황국명, 『경계 혹은 타자로서의 바다』, 『문학도시』, 1999년 가을호, 37쪽.
- 황국명, 『다매체 환경과 소설의 운명』, 『현대소설연구』~1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9-11쪽.
- 황국명, 『지역을 통한 사유와 지역문학의 전망』, 『계간시』, 2001년 겨울호, 60-76쪽.
- 이효덕, 『표상 공간의 근대』(박성관 역), 소명출판, 2002, 336-339쪽.
- A.Milner,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 Newyork Univ.Press, 1996, pp.32-34, 42, 104-107, 109.
- C.A.반 퍼어슨, 『문화의 전략』(오영환 역), 법문사, 1980, 20-26쪽.
- D.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The Johns Hopkins Univ.Press, 1975, pp.23-24, 216, 237.
- D.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asil Blackwell, 1990, pp.302-303.
- D.Harvey,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1996, pp.296-297, 302, 306.
- E.W.Soja, Postmodern Geographies, Verso, 1989, pp.89-105.
- F.Jameson, The Geopolitical Aesthetic, Indiana Univ.Press, 1995, pp.1-3.
- F.Moretti, Atlas of European Novel, Verso, 1998, pp.67-73.
- G.Gilloch, Myth and Metropolis, Polity Press, 1996, pp.105-126.
- H.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1994, pp.220-221.
- J.Hillis Miller, 『문학지리학』(최지원 역), 『지역문학연구』, 1999년 봄호.
- J.W.Miller(한정호 역), 『지역 연구의 전망과 과제』, 『지역문학연구』~3호, 1998, 186-187쪽.
- R.윌리엄즈, 『이념과 문학』(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2, 21-31, 179-185쪽.
- R.윌리엄즈, 『문화사회학』(설준규, 송승철 역), 도서출판 까치, 1984, 8-12쪽.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구동회, 심승희 역), 도서출판 대운, 1999, 239-246쪽.
- Yi-Fu Tuan, 『장소사랑』(최지원 역), 『지역문학연구』~6집, 2000, 164쪽.

<Abstract>

A Geographical Study of Literary Journals in Busan

Hwang, Kook-Myoung

This present study investigates literary journals or magazines in Busan. Especially focus on a geographical quality and literary movemen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both traits and outcomes of literary magazine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The literary journals of Busan unfold from a short life through differentiation to diversity.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s become the mainstream of the journal. The poetry dominants in a genre, and the special magazines matured and quarterly magazines established.

2. From beginning, the regional magazines of Busan recognize a regional inequality and assume the form of literary movement. But because of difficulty in management of a medium, the subjects of movement want a patronage. The regional media competed with different magazines in the inside. In the process, they exhibited a different recognition about regional particularity. The regional literary magazines pluralize a recognition about literature and democratize writing. Especially the district magazines show a aesthetic relationship with the specific place. At the same time, the regional magazines pursuit a universality, anti-ideology and globalization.

3. The most important journals in Busan are 『the vision』(전망) and 『the horizon』(지평). Each one of two pursuits the ontological strategy of culture and the functional strategy of culture. The former lay stress on significance of critical interpretation, the latter lay stress on value of social practice. The

problem of dialectical synthesis turn over 『Korean critical review』(오늘의문예비평)

Key Words : Busan, literary magazine, regional inequality, geographical imagination, regional discourse, regional particularity, media competition, spatial stigma